

요나서의 시작은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하십니다.

말씀이 임한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세 개의 동사를 통한 분명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일어나, 니스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스로 향합니다.

요나의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은 요나를 아밋대의 아들 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밋대는 진리라는 뜻이고,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그는 말씀의 전달자, 진리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날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감 없이 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고후 2:15, 3:3)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을 피해 달아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요나가 니스웨를 피하여 다시스로 향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와 닳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여호와를 향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 아닌 불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와 말씀은 요나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도시로 가라는 것이 의외입니다.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큰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국가적으로 손해가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앗수르인들은 정말 큰 죄인들이고, 악을 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니스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에게 니스웨 사람들, 즉 앗수르 사람들은 심판 받고 멸망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요나에게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기 쉽지도 않고, 순종하면 나와 내 민족에 손해가 될 것이고, 더 큰 의미로 옳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에 그는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도 완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순종의 걸음을 뚝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사 55:9)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나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 분의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을 피하고,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알려 주시고, 결국 사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주시고, 요나를 온전하지 않지만 조금씩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가, 회복의 기회, 사명의 기회,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यो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9/18(월)	9/19(화)	9/20(수)	9/21(목)	9/22(금)	9/23(토)	9/24(주일)
겔40-41	겔42-44	겔45-47	겔48,단1-2	단3-4	단5-6	단7-8

QT

이번 주 QT 말씀

9/18(월)	9/19(화)	9/20(수)	9/21(목)	9/22(금)	9/23(토)	9/24(주일)
히10:1-10	히10:11-25	히10:26-39	히11:1-7	히11:8-16	히11:17-31	히11:32-40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
3.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순종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세요.